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3년 5월 9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글로벌도시기획과	담 당 자	• 글로벌협력팀장 한창현 ☎440-3481 • 담당자 곽초롱 ☎440-34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세계 초일류 도시로의 출발점

- 시민, 직원 등 400여 명 참석해 재외동포청 유치 성과 공유 및 축하자리 마련 -
- 유 시장, 모든 분들께 감사, '하면 된다' 는 자신감으로 어려움 극복하고 재외동포청 유치 -
- 1천만 도시 개막, 재외동포들의 거점이자 활동무대로 위대한 인천의 역사 만들 것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9일 시청 중앙홀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성과를 공유하고, 경축하기 위한 기념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조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의회 의원, 재외동포청 유치 시민운동본부,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원로회의, 시청 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힘써 온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재외동포청 유치 추진 경과보고와 유정복 시장의 인사 말씀, 축하 세리머니순으로 진행됐다.

유정복 시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먼저,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하고 실천하신 것과 유정복을 믿고 인천에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천 유치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750만 재

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또, “결과만 보면 쉬웠던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일일이 말할 수 없고 책을 한 권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며, “그렇지만 취임 때 외쳤던 것처럼 ‘하면 된다’ 는 자신감으로 이를 극복하고 재외동포청을 유치했고, 이를 통해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우리 시의 비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게 됐다” 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인천은 재외동포와 함께 1천만 도시를 열어가게 됐고, 인천이 재외동포들의 고향이자 거점, 그리고 활동무대가 될 것” 이라며, “재외동포청 유치를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1천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위대한 인천의 역사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세리머니는 유정복 시장이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을 선창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1천만 도시 인천” 을 후창하면서 축하의 함성과 박수로 마무리했다.

한편,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인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 관련 법안이 통과돼 외교부 외청으로 신설이 확정돼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며,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서비스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관련사진>



※ 그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